

장진영 고문



문홍남 부지회장



강성훈 부지회장



우병한 지회장

우리가족한마당

시련통해 다진 힘 모아

강서지회

발전된 내일 준비

잔디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서로 모여
뿌리를 엮고 살아감으로써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듯 강서지회는 80년 영등포구에서
분리, 90년 양천구 분리 등의 어려움을 회원의
친목과 단결로 이겨내고 오늘날 탄탄한 조직을
일구어냈다.

교통 수단을 통해 서울에 이르는 방법 중
누구나 쉽게 떠올리는 것이 철도와 고속도
로 이용법이다. 이럴 경우 철도는 서울역이,
고속도로는 각 버스 터미널이 서울의 관문
격이 된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 항공편으로 생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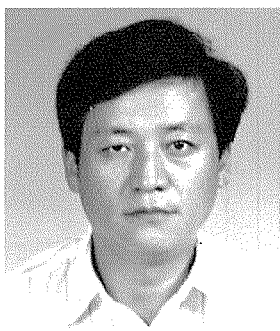
송규천 부지회장

면 서울의 관문은 김포공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김포공항은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드나드는 창구라는 면에서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관문의 성격을 띠기 때문
이다. 따라서 공항을 끼고 있는 강서구도 같
은 의미를 지닌다.



방만재 이사



김승천 이사



유지환 감사

강서구는 지역적으로 다른 곳과는 달리
남다른 특성을 띠고 있다. 타 지역은 비교
적 골고루 상권이 발달해 있으나 강서구는
가장 중심지인 화곡동을 비롯해 일부 지역
에 상권이 치우쳐 있는 편이다. 따라서 제과
점도 이런 주요 상권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미개발 지역의 아파트 단지 조성과 2기 지
하철 5호선 공사 등 도시 모습 바꾸기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양천구 분리 등 어려움 딛고 단단한 토대 구축

강서 제과인의 집결체인 강서지회(지회장 우병한)가 창립된 것은 1980년으로 올해 17년을 맞는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강서지회는 타 조직이 친목 모임에서 창립 형태로 발전한 것과는 다른 역사를 갖고 있다. 강서지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영등포구에서 행정구역상 강서구로 분리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80년 30여 회원으로 출발한 강서지회는 적은 회원과 분리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설립 초기의 조직들이 겪는 공통적 어려움인 재정난과 사무실 미비, 조직 체계 정립 등이 그것이었다. 이 난관을 강서지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단결력으로 이겨냈다.

그러나 강서지회는 회원의 융합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업소의 증가에 힘입어 탄탄한 토대를 구축할 무렵인 1990년 다시 양천구가 분리됨으로써 70여 회원으로 줄어드는 등 또다시 어려움을 직면했다. 그렇지만 이 역시 회원의 단결력으로 이겨내고 오늘날 140여 회원을 갖춘 단단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 강서지회는 우병한 지회장을 비롯해 고문과 감사, 사무국장, 3명의 부지회장, 11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지역별로 이사를 구성해 지회와 지역 회원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케 하고 있다. 특히 강서지회는 타 지역과 달리 많은 회원들이 오랜 기간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해 온 까닭에 그 어느 지역보다 회원간 친목이 두터운 것이 특징이다. 이사들 역시 오랜 세월을 이곳을 터전으로 영업해 왔고 평균 7~8년을 이사로 일해 왔기 때문에 강서지회의 친목과 단결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오랜 기간 다져온 친목으로 대외 활동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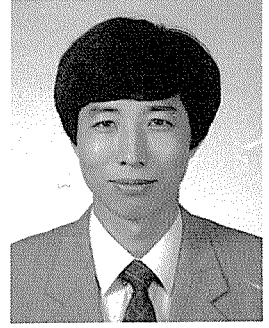
이밖에 강서지회에는 과우회가 구성돼 있어 매월 15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으며 과우회를 중심으로 회원의 애경사를 비롯해 상호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이런 강서지회 회원의 친목은 강서지역이 그 어느 곳보다 일부 상권에 업소가 밀집돼



박상민 이사



곽성호 이사



이계하 이사



박태영 이사



허경남 이사



박종복 사무국장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개업시 화환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훈훈한 정이 살아있다는 설명에서도 잘 나타난다.

회원의 친목은 단결과 함께 조직이 다양한 활동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강서지회는 대외 봉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군·관·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을지훈련시 회원들이 힘을 모아 간식을 제공했고 지난해 건국 이래 최대 참사였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시에도 제일 먼저 자원 봉사자들을 위해 빵을 전달한 것도 강서지회였다.

이밖에 굳이 지회 차원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부정기적이긴 하지만 양로원과 아원 등에 온정을 펴는 알려지지 않는 손길이 많은 것도 강서 제과인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강서지회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먼저 외적 요인으로 지역 상권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그동안 강서지역은 일부지역에 상권이 집중돼 있었으나 가양동, 공황동 등에 상권이 확대되면서 회원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계속될 예정이다. 또 2기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면 상권 발전과 유동 인구가 늘어 강서지회는 한층 발전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산악회 구성, 기술 세미나로 친목과 기술 도모

이밖에 내적으로도 강서지회는 올해 과우 산악회가 조직돼 한달에 한 번 서울 근교 산부터 산행을 가질 예정이고 벌써부터 회원의 호응이 좋아 친목과 단결을 더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타 지역에 비해 기술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회 차원의 기술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강서지회는 앞서에서도 언급했듯 오늘날이 있기까지 순탄치 않은 세월을 지나왔다. 영등포구에서 분리돼 정상 궤도에 오를 시점에 다시 양천구가 분리돼 어려움을 겪었으나 회원의 친목과 단결로 오늘을 일구어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마치 잔디의 생명력을 연상케 한다. 잔디 하나하나의 약하지만 뿌리를 서로 엮고 뭉쳐 살며 응집력을 통해 아무리 밟아도 다시 살아나는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듯 강서지회 역시 회원의 친목을 통해 난관을 헤쳐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지금까지의 어려움보다 더한 시련이 앞으로 닥친다 하더라도 이를 이겨내고 더 발전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강서지회 회원의 잔디와도 같은 굳은 친목과 단결력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K]

(글/박종선)